

북한에 '여성 강도' 활개

북한에 여성 강도가 활개치고 있다. 여성 강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드물었던 최근 신종 사회 현상이다.

지난 12월22일 평안북도 신의주시 채하동에 살고 있는 이모씨(여자,38세)의 집에 대낮에 강도가 들었다. 그녀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어 화장실의 욕조에 처박아 놓고는 집안의 전 재산인 미화 2000불정도(미화와 북한돈 포함)의 현금을 털어갔다고 한다. 강도들은 부부로 가정한 남자와 여자인데 그들은 채하동 암달리 시장에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에게 화폐를 교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모 여인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간 직후 다짜고짜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결박한 뒤 강도 행위를 한 것이다.

북한 사회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폭력을 수반하는 강도 범죄는 드물었다. 여성 강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살기가 팍팍해지자 절도, 강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사기, 절도 또는 밀수, 인신매매, 마약 유통 등 경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여성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강도들의 범죄 수법과 대상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밤에 지나가는 남성들의 자전거나 짐을 남자강도들과 짜고 강탈하는 현상이라든가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행객들의 짐을 빼앗거나 하는 현상들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2006년까지 평양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김 모씨에 따르면 2006년 당시에도 평양에 남녀 혼합 강도조 사건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를 세워 뒷자리를 얻어 타고 가다가 불빛 신호를 하면 남자 공범이 나타나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폐 장사꾼(암달리상)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집이나 교환 장소에서 대낮에 버젓이 범행을 감행한다고 한다. 한 달전에는 평양시 낙랑구역의 어느 한 암달리상이 여자강도와 결탁한 남자강도의 둔기에 머리를 맞고 실신한 뒤 돈을 전부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먹을 것이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강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 걸쳐 지금 처럼 농후하게 나타난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이러한 폭력 범죄는 보안원(한국의 경찰)들의 부패와 맞물려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인민의 수호자”라고 하는 보안원들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일꾼들은 범죄 단속보다는 뇌물 등 자신의 이속 챙기기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 보안원들의 사회 기강, 치안 유지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 강도 행각은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